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을 위한 창작무용 교육모형 개발*

김 현 남**

- | | |
|-------------------|---------------|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IV. 연구결과 및 논의 |
| II. 한국사회의 다문화적 변화 | V. 결론 및 제언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한 국내 언론에서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을 다문화 국가로 생각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82.7%가 ‘그렇다’라는 답변을 제시하였다.¹⁾ 이러한 답변이 반영하듯 일상생활 속에서 한국인과 다른 피부색과 인종적인 특징을 지닌 이들을 대면하는 것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사회상이 되었으며, ‘다문화’라는 단어 또한 일상과 지식의 영역에서 흔하게 활용되고 있다. 한국 사회는 1996년 이후 각종 제도와 사회적 수요에 따라 이주민이 유입되면서 현재까지 이주민구 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이주민을 위한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정부의 정책들이 시행되어져 왔다. 이주민들은 한국 사회에 정착하면서 언어소통의 어려움, 문화에 대한 부적응, 한국사회의 부정적 편견과 물 이해, 교육적 혜택의 축소와 심한 경우에는 인격적인 모독과 폭력 등 다양한 문제점을 경험하고 있다.²⁾

다문화가정의 자녀가 취학을 하면서 새로운 사회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 중에 다양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는 언어적인 측면 그리고 정서적인 측면, 교우관계 등 학교라는 새로운 사회의 구성원이 되면서 생기는 문제점들이다. 먼저 다문화가정인 경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일을 하는 맞벌이 부모나 타국의 국적을 가진 부모가 가사를 돌보게 된다. 이러한 환경적인 조건으로 취학 전에 언어에 대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아 학교 입학 후 언어로 인한 여러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정서적인 측면에서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교우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로 인하여 심리적인 불안정을 겪게 된다. 학교 부적응과 다양한 문제들로 인하여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자신감 및 자기효능감이 손실되어 청소년기 심리적 불안을 부추기는 역할을 할 것이고 나아가 사회에 적응을 하는데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A2A01019710)

** 한국체육대학교 생활무용학과 교수, hnkim1127@naver.com

1) 김규철(2013년 7월 29일), 대한민국은 이미 ‘다문화국가’, 『내일신문』.

2) 박현정, 이영주, 신정원(2013), 『경계를 넘어선 예술: 한국예술연구소 예술교육총서 4권』(서울: 연극과 인간), p.157.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여전히 단일민족임을 강조하고 혈통을 중시하고 있는 현실에서 아무런 준비 없이 다문화사회로 진입한 까닭에, 다문화가정 구성원들이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제도와 교육프로그램은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며 결과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자녀들은 새로운 교육소외계층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의 대부분은 언어에 치중돼 있는 반면 사회적응력, 창의력, 표현력 등을 향상시키는 데 효과적인 문화교육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다양한 문화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장소와 제반 여건 또한 부족하다.³⁾

주요 기관을 바탕으로 다문화 교육사업의 실태를 살펴봤을 때, 다문화가정을 위한 프로그램은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으나 다문화 무용교육은 장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다는 사실과 다문화가정의 초등학교 자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매우 열악한 실정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 이유로 인해 학교 교과목 이외의 예술교육은 중요성이 부각되지 못하기에 실제 다문화 청소년들은 예술교육의 수혜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춤은 인간의 다양한 움직임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움직임에는 각 나라의 역사·사회·예술 문화 등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다. 인간은 무용을 통해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과 타인에게 감정을 표출할 수 있는 용기도 함께 얻을 수 있다.⁴⁾ 이러한 맥락에서 춤을 통해 자신의 모국, 타인에 대한 이해, 최종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이해의 단계까지 이를 수 있으며, 움직임에 대한 본질적인 즐거움을 깨우치고 움직임을 통한 정서 표현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갈 수 있다. 춤은 언어의 장벽이 없다는 특성 때문에 자신을 재발견할 수 있고, 타인에게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특히 다문화가정 자녀는 춤을 접함으로써 언어적 문제로 인한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자기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자아를 발견하게 된다.

실제로 나경아, 박현정, 오유진(2012)⁵⁾은 다문화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들이 무용에 대한 요구도가 높으며, 문화정체성 형성에 대한 무용교육 프로그램 효과성을 밝혀내었다. 김인숙과 이경희(2011)⁶⁾는 무용을 통해 다문화 가정 아동들의 내재화 문제와 학교생활적응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보고하였고, 손재현, 김한아, 이성노(2012)⁷⁾의 연구에서는 무용이 다문화가정 자녀와 일반 가정 자녀 모두의 사회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다문화가정 자녀가 일반 가정 자녀보다 사회성이 보다 더 증가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김수경(2012)⁸⁾의 연구에서도 소고춤 체험을 통해 다문화가정 아동이 한국문화에 잘 적응한다고 나타내었다.

여러 선행연구를 통해서 나타난바와 같이 무용이 지니는 장점과 특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교육 내에서 무용을 충분히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다. 특히 학교무용교육은 1908년 고등여학교와 1909년

3) 장현주(2010),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지역문화시설의 무용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27-30.

4) 한혜리(1996), 『무용교육론』(서울: 한학문화), p.16.

5) 나경아, 박현정, 오유진(2012),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문화정체성 형성을 위한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한국무용기록학회지』 24, pp.19-35.

6) 김인숙, 이경희(2011), 무용/동작 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7(4), pp.57-73.

7) 손재현, 김한아, 이성노(2012), 무용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성 발달, 『우리춤과 과학기술』 18, pp.88-106.

8) 김수경(2012), 소고춤 체험을 통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문화 적응,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70-71.

사범학교 교육내용에 ‘유희’가 필수 교재로 채택되면서 시작되어, 1955년 1차 교육과정에서 현재 7차 교육 과정에 이르기까지 체육 과목의 한 영역으로 많은 변화를 거쳤다. 그동안 무용교육의 중요성이 끊임 없이 주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용교과는 아직도 초등학교 1-2학년에는 즐거운 생활을 한 단원으로, 3학년 이후에는 체육교과 안의 한 단원으로 학습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고무적인 일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 확대를 목표로 1990년부터 문화부는 중앙의 고급 문화예술을 각 지역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찾아가는 문화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의 문화향수자 중심의 지원 사업 역시 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문화소외지역과 계층을 위한 다양한 문화 나눔 운동이 확대되고 있으며,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가정이 새로운 역할과 기능을 담당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다문화가정 자녀의 잠재적 능력을 개발하고 키울 수 있는 무용교육의 필요성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무용교육은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문화 현상과 교육현장에 대한 이해를 통해 다양성과 통일성, 보편성과 특수성이라는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모든 문화집단의 구성원은 동질적 문화 요소만을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의 민속춤을 소개하는 소극적인 무용교육에서 벗어나 참여자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방향으로 무용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민속무용 레퍼토리 중심의 다문화 무용교육은 각국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쉽게 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으나 문화적 본질주의 및 극단적 문화상대주의적 무용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무용 활동을 통한 신체적 공통경험을 강조하더라도 타자의 문화를 수동적으로 배우는 차원에 머무른다면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소통과 교류를 지향하는 다문화교육의 목표에서 멀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문화 이해의 기틀은 자신을 이해하고 환경과 뿌리를 인식하는 데서 출발하는 것이다. 따라서 무용교육모형의 기반은 그들의 삶과 환경을 고려한 움직임과 자기표현 유도 방식에 관한 자료 분석이 우선시 되었다. 초등학교 교과서의 분석과 더불어 학년 차에 관한 이해도와 집중도 등을 점검하였다. 학년 별 수준을 고려한 수업진행방식에 관한 연구가 병행되어, 학생들의 연령과 환경 그리고 성별과 성격 등을 고려한 교육 방식에 관한 자료 수집을 보충적으로 이루어 나갔다.

본 연구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우선 다문화가정 학생 대상의 프로그램과 일반학생 대상의 프로그램 간에 큰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었다. 지금까지의 다문화 교육은 주로 전자에 집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 및 결혼이민자가 다문화가정을 형성하고 이들의 자녀가 취학함에 따라 민간 및 정부차원에서 다문화가정 학생을 다문화교육의 정책적 대상으로 삼아 다양한 교육활동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한편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각종 정책과 지원이 꾸준히 이루어진 것에 비해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교육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무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학생들의 다문화 인식 재고 및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의 경우 방과 후 활동이나 재량활동시간 및 언어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예체능 시간, 그리고 일회적 축제나 단기 교육 등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문화교육을 다루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량활동시간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 내 다문화가정 및 일반가정 자녀 중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를 위한 무용교육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기존의 무용교과 프로그램을 분석하고 무용을 다문화적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을 구축함으로써 창의성과 개성을 존중한 창작 무용교육 모형이다. 특히 다문화교육이 교육 대상, 인원수, 수업 시수 및 물리적 환경에서 다양하기에 이

를 감안하여 교육모형의 구성 원리를 명시하고 활용하는 방법을 통해 초등학교 무용교과 외의 다양한 환경과 맥락에서의 수업이 가능하도록 동작의 간소화 등 재구성 및 개별화가 가능한 형태의 교육모형을 개발하고자 한다.

II. 한국사회의 다문화적 변화

다문화사회란 한 나라에 타 민족이 이주하여 동화되고 적응하여 함께 사는 것을 말한다. 한국 역시 1990년대를 기점으로 농촌지역의 국제결혼 급증, 북한이탈주민의 증가, 외국인 노동자의 지속적 증가, 취업이나 학업 목적으로 들어온 외국인의 증가 등으로 다문화사회로 빠른 속도로 변모하고 있다. 다문화 가정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2003년 30여개의 시민단체로 구성된 건강시민연대에서 국제결혼, 혼혈아 등의 차별적 용어를 추방하고 대신 다문화가족이나 다문화가족 2세로 부르자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큰 호응을 얻고 있어서 대통령 자문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회의 홈페이지의 뉴스레터, 재외동포재단 홈페이지, 새국어 소식 2004년 6월호, 한양대 신문, 여성신문 76호 등 관련단체에서 고쳐 부르고 있다.⁹⁾

최근 한국 사회에서 진행되는 사회변동의 핵심은 국제 이주로 인한 다인종·다민족화라는 분석이 보편적이다. 이러한 논의가 사회적 변화의 특징으로 제시하는 다문화 현상은 이주민이 증가함으로써 촉발된 것이라 설명된다.¹⁰⁾ 외국인의 인적 구성을 보면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 한국사회가 놀라울 정도로 다양한 국가 출신의 이주민이 공존하는 사회로 이행되고 있다는 점이며, 둘째, 그럼에도 이주민 대부분은 아시아 국가 출신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셋째, 국내에 체류 중인 이주민들은 동질적인 집단이 아니라 다양한 층위로 구성되는데 크게 전문직에 종사하는 ‘데니즌(denizen)’과 사회경제적 취약자인 ‘마지즌(margizen)’으로 구분할 수 있다.¹¹⁾

지금 한국은 다민족 국가로 변하고 있다. 다문화 혼인·출산율이 매년 증가 하고 있는데, 2012년 한국의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는 2만2908명으로 전체 신생아(48만4550명) 중 4.7%를 차지했다. 다문화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의 비율은 2008년 2.9%, 2009년 4.3%, 2010년 4.3%, 2011년 4.7%, 2012년 4.7% 등으로 증가 추세이다. 2008년부터 2012년 사이에 태어난 혼혈 아이는 9만 7701명이다. 2012년 혼인한 다문화가정의 남성(남편)은 한국인 71.0%, 귀화 한국인 7.2%였고 이 가운데 남성의 출신 국적은 한국 71.0%, 중국 9.2%, 미국 5.5%, 일본 5.4% 등의 순이었다. 여성은 중국이 29.9%로 가장 많고 베트남(23.2%), 한국(22.2%), 필리핀(7.8%) 등으로 뒤를 이었다.¹²⁾

이러한 다문화적 변화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아시아 권역 중심으로 다양화되었다는 점이다. 2012년 통계청이 제시한 다문화가정 자녀 부모의 출신국별 현황에 따르면 상위 5개국을 차지하는 중국(한국계), 중국, 일본, 베트남, 필리핀이 모두 아시아 국가임을 알 수 있다(〈표 1〉).

9) 김갑성(2006),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23.
 10)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2012), 『다문화 사회의 이해: 다문화 교육의 현실과 전망』(서울: 동녘), pp.138-139.
 11) 앞의 책, pp.141-142.
 12) 박찬준(2014년 7월 30일), 신생아 20명 중 1명 다문화가정서 태어나, 『세계일보』.

〈표 1〉 다문화가정 자녀 부모의 출신국별 현황(통계청, 2012)

부모 출신국별	중국	중국 한국계	대만 홍콩	일본	몽골	베트남	필리핀	태국	캄보 디아	파키 스탄	우즈베 키스탄	러시아	미국	캐나다	동남아 기타	남부아 시아	서유럽 대양주	기타	계
소계	11,929	19,796	1,418	9,801	902	7,028	5,481	1,160	709	580	580	644	1,289	257	322	838	257	1,418	64,483
비율(%)	18.5	30.7	2.2	15.2	1.4	10.9	8.5	1.8	1.1	0.9	0.9	1	2	0.4	0.5	1.3	0.4	2.2	100.0

또한 2014년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국적별 비중이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기타, 남부 아시아 국가의 순으로 나타남을 볼 때 한국사회의 다문화적 변화가 아시아 중심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표 2〉).

〈표 2〉 2014 국제결혼가정 자녀 국적별 현황(통계청, 2014)

권역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중앙시아	남부아시아	기타
국적	중국, 중국(한국계 중국), 대만, 일본, 몽골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미얀마, 말레이시아, 홍콩, 기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기타	스리랑카, 파키스탄, 네팔, 방글라데시, 인도, 기타	미국, 러시아, 러시아(한국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뉴질랜드, 독일, 영국, 프랑스,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기타
소계 (명)	105,743	85,250	3,579	2,558	7,074

국제결혼가정 자녀 학교급별 비율로는 초등 78.6%, 중등 16.0%, 고등 5.4%로 초등학교 재학생 비율이 다른 학교급별 보다 월등히 높게 나왔다. 지역별 비율로는 경기(22.3%), 서울(12.9%), 전남(9.6%), 경남(7.2%), 충남(7.0%)순으로 높았고 부모 국적별로는 일본(36.4%), 중국(17.3%), 필리핀(17.1%)등의 순으로 높았다(〈표 3〉).

〈표 3〉 2007~2010 국제결혼가정 자녀 학교급별 현황(단위:명)(교과부, 2010)

연도	초등	중등	고등	계
2007	11,444	1,588	413	13,445
2008	15,804	2,213	761	18,778
2009	20,632	2,987	1,126	24,745
2010	23,602	4,814	1,624	30,040

2006년도를 기점으로 다문화가정 자녀의 취학률이 증가하고 특히 초등학생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2012)의 자료에서 보듯이 학령기 다문화가정 자녀 중에서 잠재적 초등학교생인 6세 미만 자녀가 현재 학령기 연령의 자녀 비율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표 4〉). 이는 단지 초등학교 취학연령에 있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비중이 높음을 나타내는 것 외에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로의 진학률이 매우 낮음을 보여준다. 공교육 제도는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통과의례라 할 수 있다. 이들의 학습결손 및 학업중단을 방지하고 나아가 자아존중감, 문화정체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으

로 통해 중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더불어 공존할 수 있기 위해서는 초등학생을 위한 보다
 상세하고 긴급한 교육과정 보강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적, 일
 시적 교육 프로그램의 차원을 넘어 초등학생 대상으로 한국사회의 다문화적 변화를 인식하고 적극적으
 로 다루는 다문화 이해 교육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실정이다.

〈표 4〉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별 분포(통계청, 2012)

구분	계	6세 미만	6세-11세	12-14세	15-17세	18세 이상
비율	100%	52.4%	25.7%	8.4%	4.6%	8.9%

영화 『완득이』에서 나타난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의 명과 암을 보거나, 2012년 당선된 비례대표 국
 회의원인 필리핀 출신 귀화여성 이자스민에게 쏟아지는 인종차별적 공격에서도 보듯이 자국의 초등학
 생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사회에 대한 인식교육 없이는 이주민에 대한 편견과 폭력이라는 다문화사회의
 어두운 이면을 피하기 어렵다. 따라서 다문화교육은 소수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교육으로
 재인식 되어야 할 것이다.

다문화가정의 자녀에 대한 각종 정책과 지원이 꾸준히 이루어진 것에 비해 일반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교육은 아직 초기단계에 머무는 것이 현실이다. 일반 학생들의 다문화 인식재고 및 이해를 위한
 프로그램의 경우 방과 후 활동이나 재량활동시간 및 언어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예체능 시간, 그리고
 일회적 축제나 단기 교육 등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정규 교육과정에서 다문화교
 육을 다루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량활동시간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뜻한다. 이렇듯 다
 문화가정을 한국 사회에 정착시키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는 성장 잠재력을 지
 닌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이들이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음으로써 사회의
 일원으로 역량을 키워나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당면한 과제이다. 다문화 교육의 강조는 그동안
 민족의 단일성을 강조해 온 우리 교육현실에 새로운 도전이 아닐 수 없다. 변화하는 교육 가치를 반영해
 온 국내 교육과정은 다양성과 상호이해의 차원에서 확대되어 나가야 할 것이다. 6차 교육과정에서는 세
 계화 교육, 7차 교육과정에서는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의 토대위에 새로운 가치창조의 내용을 포함한다.
 이제 다문화 관련된 내용이 교육과정에도 반영되어야 한다.

한국의 초등학교 공교육 내에서 무용교육은, 무용이 체육교과의 일부로 자리하고 있으며 3-6학년 과
 정에만 존재한다. 교육과학기술부(2011)의 자료에 의하면, 3-6학년 체육의 경우 전체 수업시수의 1/10
 가량을 차지하지만(3-4학년군 204/1972, 5-6학년군 204/2176), 무용은 이 중의 일부로서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업시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2009년에 개정된 현행교육과정에 따르면,
 초등학교 체육교과는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의 5가지 활동영역으로 구성된다. 여기에서 무용은
 주로 표현활동에 집중되는데, 3-4학년은 움직임과 리듬 표현에, 5-6학년은 민속 표현과 주제 표현에
 집중되어 있다. 또한 초등학교 1~2학년 교과목인 〈즐거운 생활〉과 3~6학년 〈체육〉 수업의 학습내용
 중 『민속무용 레퍼토리』 중심의 단편적인 수업에 그치고 있다. 다문화 무용교육이 표현 활동과 신체 움
 직임 중심의 학습목표를 구축하고는 있으나, 민속무용 레퍼토리 수업은 굉장히 편향적인 이해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우려할 수 있다. 민속무용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다문화 무용교육의 문제점은 주요 교

과 콘텐츠 내용이 유럽 권에 편중된 경향을 보인다는 점을 들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교과과정의 바탕이 되는 7차 교육과정을 분석해보면 필리핀의 민속무용 1건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유럽 권에 편중된 경향을 나타낸다. 앞서 살펴보았듯 한국의 다문화적 특성이 외국인 노동자, 북한이탈주민, 중국동포 이주민, 국제결혼가정 등 아시아 국적 이주민의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감안할 때, 현재 다문화 무용교육은 한국의 사회적 맥락과 괴리되어 있음을 드러낸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외국인근로자와 새터민 가정의 아동을 제외한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들을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일 방향적인 한국문화의 투입이라는 폐단에서 벗어나고 한국사회의 다문화주의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을 위하여 한국가정의 자녀들 또한 연구대상에 포함시켜 연구대상의 범위를 조정하였다. 연구대상의 범위를 조정한 것은, 다문화가정의 세 유형이 나뉘어 집단을 이루면서 각 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을 수용하고 있는 교육기관에서도 새터민, 국제결혼, 외국인근로자의 유형이 분리되어 교육이 진행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새터민 가정과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경우에는 신변과 주변의 환경적인 이유로 인해 정확한 인원 조사가 힘들고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대상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 5〉 연구참여자 개인적 특성

No.	이름	학년	연령	성별	부모출신국		출생국
					부	모	
#1	김☆☆	6	13	여	한국	한국	한국
#2	오○○	6	13	여	한국	한국	한국
#3	김***	5	12	여	한국	한국	한국
#4	장△△	5	12	여	한국	필리핀	한국
#5	장★★	5	12	남	한국	한국	한국
#6	김□□	4	11	여	한국	한국	한국
#7	엘■■■	4	11	여	러시아	러시아	러시아
#8	윤◎◎	4	11	여	중국	중국	한국
#9	박▲▲	3	10	남	한국	일본	한국
#10	이♣♣	3	10	여	한국	일본	한국
#11	임♣♣	3	10	남	한국	태국	한국

연구대상자 선정에 앞서 서울 및 경기지역에서 다문화가정의 정착지원과 교육 사업 등을 담당하고 있는 다문화 교육정책기관에 사전 방문 요청을 한 후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 및 다문화가정의 부모 및 자녀들을 대상으로 조사 및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이후에는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창작무용교육 모형의

교육적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 경기도에 위치한 ‘M청소년수련관’을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할 초등학생을 선정하였다. 무용 프로그램에 참여할 대상자는 현재 복지기관에서 운영 중인 체육, 음악, 미술, 언어 교육프로그램 외에는 전문적인 무용학습 경험이 없는 학생들로, 부모의 동의를 거쳐 자원한 11명을 선정하였다. 11명의 연구참여자 중 다문화가정 자녀 6명의 부모 국적은 필리핀, 일본, 태국, 중국, 러시아이지만 이들 자녀들은 모두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다. 모두 고학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학생 8명, 남학생 3명이며 평균 신장 151.9cm 평균체중 42.3kg 이다(<표 5>).

2. 연구절차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상을 이해하고 자연스럽게 동화시키기 위해서는 대상자의 특성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필요하며 모형개발에 따른 적용 시 실제 현장의 다양하고 복잡한 현상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계에 따른 접근전략이 활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전략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먼저 보건복지부, 통계청 등 정부기관의 통계 자료 조사를 실시하여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 외국인근로자 가정, 새터민 가정의 아동 및 청소년들의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였다.

현황 조사 이후에는 현재 다문화가정의 정착지원과 교육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서울 및 경기지역의 위치한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대안학교 및 국제비정부기구인 NGO 등 다문화 교육정책 기관을 방문하여 다문화 교육의 현황과 다문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무용교육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공교육 내의 무용교육 현황분석을 위한 기관조사연구 및 매스 미디어 검색, 아동 관련 자료, 국내의 문헌고찰, 그리고 현재 초등학교 일선에 있는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의 실제 대상자인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그룹 인터뷰 및 참여관찰을 병행한 다단계 설계를 실시하였다. 또한 개발된 창작무용 교육모형은 초등학교시기에 적합한지, 실제 현장에서 적용가능한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예비검사를 실시하였다. 예비검사는 2013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실시된 무용교육 프로그램으로 마지막 공연을 포함한 총 12차시의 프로그램이 적용되었다. 이를 통해 최종 완성된 무용교육모형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실용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구체적으로 2013년 6월에서 8월까지 다문화가정에 관한 이해 및 각국의 문화예술자료 수집을 진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1차, 2차 분류 및 정리를 통하여 구체적인 모형개발에 필요한 자료들을 선정하였다. 현황조사 및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무용교육모형의 1차 구조를 형성하였으며, 교육 분야 전문가와 예술 분야 전문가의 단계적인 회의를 통하여 1차 모형 개발의 전체적인 틀을 완성하였다. 이를 토대로 2013년 9월부터 대상자를 선정하였고 10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무용교육모형을 적용한 프로그램을 실행하였다. 현장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은 면담과 관찰을 병행하여 기록하였고, 포괄적인 수정 보완 작업을 진행하였다. 2014년 2월 교육모형으로서의 타당도 검증을 위한 각 영역별 교육모형 및 프로그램 검증을 실시하였다. 결과적으로 효과성 검증을 마친 무용교육모형은 1차 모형개발 당시에 나타난 문제점과 검증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여 2014년 3월에 최종 모니터 점검을 하였고, 단계적인 절차를 거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이해 창작무용교육 모형을 최종적으로 완성하였다.

3. 창작무용 교육모형에 따른 12차시 프로그램

창작무용 교육모형은 초등학교 학생들의 발달단계와 현행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과정에 따라 학년별 목표와 내용 반영하여 구성하였다. 참고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예술강사 자료와 교육부에 의하면 초등학교 교육목표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능력 배양, 기본 생활습관의 형성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체육교과의 교육목표는 신체활동 가치 중심의 체육교육으로 건강, 도전, 경쟁, 표현, 여가의 총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무용과 관련된 표현활동의 경우 움직임 표현, 리듬 표현, 민속 표현, 주제 표현 위주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표현활동의 분류에 따라 학년별 무용 레파토리가 분류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12차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다문화가정 초등학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은 1차시 당 60분씩 실시하였고 수업이 진행되기 전 warm-up 운동으로 10분씩 진행되었다. 차시별 주제를 구성하여 여러 가지 움직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고, 각 차시별 내용은 주제에 국한되지 않도록 표현활동의 중심의 다양한 소품과 영상을 활용하여 신체 움직임에 재미와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 또한 표현활동 분류에 따른 특성 중에서도 창의력과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어 12차시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1차시에서 4차시까지의 신체발달을 위한 기초단계로 자기인식을 위하여 신체 탐구, 모방, 움직임, 표현을 바탕으로 학습주제와 내용을 구성하였다. 5차시에서 8차시는 정서발달을 위한 발전단계로 움직임 확장을 위하여 창작, 표현, 공간 인식으로 보다 발전된 학습목표를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9차시에서 12차시까지는 사회발달을 위한 심화단계로 감정표현을 위한 단체 움직임, 상호교류 움직임, 공동체의식 함양 등을 반영하여 한 작품을 통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틀을 형성하였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움직임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교감할 수 있게 하였다. 레퍼토리 중심의 수업이 아니라 창작무용수업을 통해 신체 움직임의 즐거움을 느끼게 하고, 다양한 소품 활용을 통해 많은 움직임을 경험하게 하면서 아이들의 신체 및 감각 능력을 발달시킬 수 있도록 하였다.

무용 프로그램이 실시된 교육 현장에는 무용학 이론교수 1인, 무용심리학 박사1인, 무용이론 전공 석사 2인이 참가해 총 10명의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 자녀와 한국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들을 지도하였으며,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움직임과 참여도, 적극적인 태도를 관찰하였다.

4. 조사도구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될 모형이 초등학생의 다문화 이해를 위해 적합한 무용 교육모형인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표 6〉 무용교육 모형개발을 위한 조사도구 내용

구성지표	구성내용	
개인적 특성	성별, 연령, 학년, 가족관계, 부모 출신국, 무용교육 참여 여부 등	
내용	신체적 영역	유연성, 근력을 직접측정
	정서적 영역	지적, 사회정서적, 신체적 자기효능감
	사회문화적 영역	타인이해, 의사소통, 대인관계, 공동체 의식 형성

설문문항의 내용과 적절성에 대한 타당도 검증을 위하여 작성된 설문지는 학계의 권위자와 전문가에게 검증을 거쳤으며, 타당도와 신뢰도가 확보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다문화 이해를 위한 초등학생들의 무용에 대한 요구도를 파악하고 이를 반영하여 개발될 모형의 효과는 신체적, 정서적, 사회문화적 목표로 구분되며 다음과 같다.

5. 자료처리 및 분석

자료 분석은 귀납적 범주 분석과 예비검사를 통한 양적 분석이 병행되었다. 먼저 연구자와 연구보조자의 참여 및 비참여 관찰, 대상자와의 심층면담, 녹화된 자료의 영상분석을 통해 귀납적 범주 분석과 인지적 도식(cognitive mapping)을 사용하였으며, 양적 데이터는 SPSS를 사용하여 통계 처리를 통한 모형 검증이 이루어졌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다문화 아동을 위한 창작무용교육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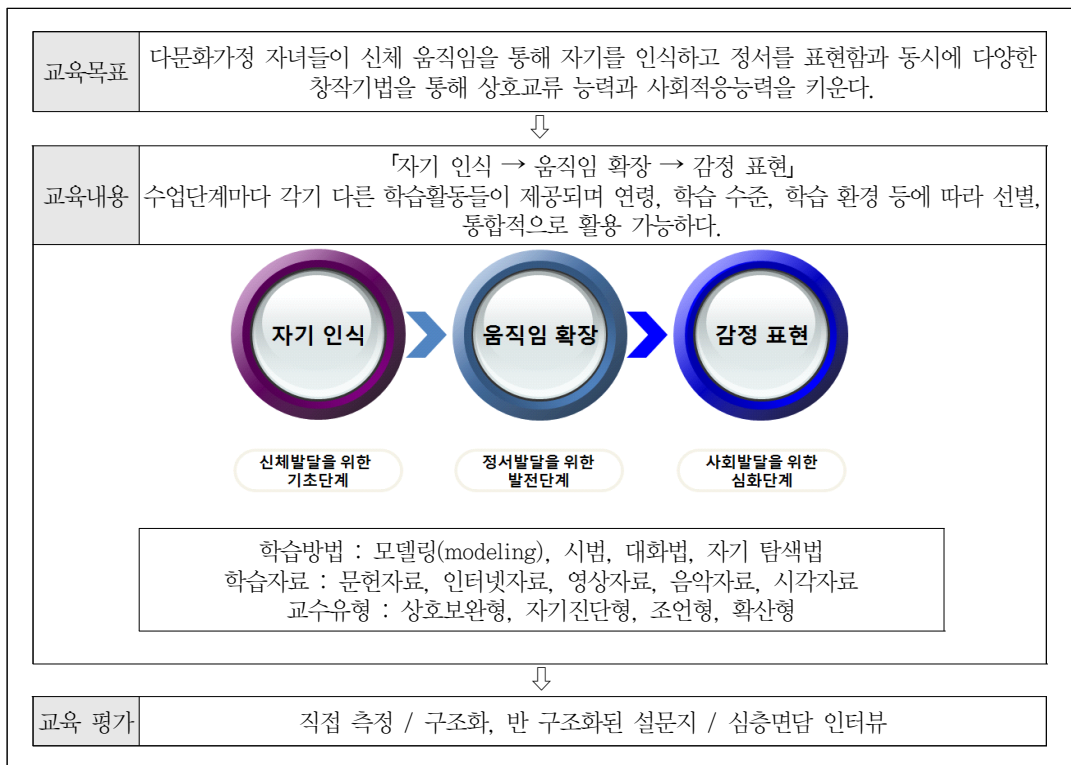
가. 교육 목표

다문화 아동을 위한 창작무용 교육모형은,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서 수동적 객체가 아닌 능동적이고 실천적인 주체로서 살아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고안된 교육 모형이다. 무용에서 인간 신체는 직접적인 매개체로서 경험과 인식의 주체가 되며 신체 움직임은 사회문화적 의식과 개인의 특수성이 공유되어 주체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다. 본 모형을 통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자녀들이 자신의 신체를 인지하고 감정을 표출하며 한국의 문화를 체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한다. 동시에 다양한 형태의 창작무용의 원리를 습득하는 과정에서 참여자 간 상호교류와 사회적응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종합하자면,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자녀들이 창작의 요소가 반영된 신체 움직임 활동을 통해 신체적, 정서적, 사회문화적 차원에서 반응하고 경험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교육 목표를 둔다.

나. 교육 내용

창작무용 교육모형은 세 단계(자기인식, 움직임 확장, 감정표현)에 걸쳐 시행된다. 각 단계별로 주제에 맞는 수업 활동들이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으며 수업 활동은 연령, 학습 수준, 학습 환경 등에 따라 선별, 통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교육 방법으로는 모델링, 직접시범, 대화법, 자기 탐색법 등이 있으며 문헌자료, 인터넷자료, 영상매체, 음악, 시각자료와 같은 교육 자료를 선별, 통합적으로 활용 가능하다.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자녀가 지니는 문화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교사와 학생 간의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일방적인 문화 전달과 흡수의 형태가 아닌 쌍방향의 상호작용 형태의 교사와 학생 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이때, 교사는 상호보완형, 자기진단형, 조언형, 확산형과 같은 교수 형태 중 학습자의 연령, 학습 수준, 학습 환경, 학습 목표에 따라 적절한 교수 유형을 선택하여 지도할 수 있다.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양식화된 무용장르보다는 내면의 욕구, 정서를 자유로운 움직임으로 표출할 수 있는 형태의 무용을 더 선호하다는 점을 반영하여 창작무용의 자유로운 표현을 유도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설계되었다.¹³⁾ 첫 번째 단계인 ‘자기 인식’에서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자녀들이 자신의 신체를 스스로 인지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긍정적인 신체상으로 변화시키는 내용을 담는다. 움직임을 통해 자신의 신체를 주체화시키면서 움직임의 가동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형태의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해 본다. 또한 주요 관절 및 근육을 중심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운동법을 이해함으로써 신체 부위별 강화 및 이완 효과를 준다. 두 번째 단계인 ‘움직임 확장’에서는 과거와 현재 나의 모습, 내가 그려보는 나의 미래 모습으로 나누어 구성되었다. 또한 학령기 아동임을 감안하여 움직임을 통한 언어습득 및 표현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보다 더 논리적이고 효율적인 언어 학습을 위해서는 비언어적 표현수단인 동작언어(몸짓, 표정, 손짓 등)가 전달내용을 보충하고 강화시켜 주기 때문이다.¹⁴⁾ 마지막 세 번째 단계인 ‘감정 표현’ 단계는 수업을 통해 배웠던 것을 활용하여 작품을 구성하고 연습함으로써 다양한 움직임이 자신 신체 안에 충분히 담아내도록 한다. 수업 참가자들이 작품을 연습하고 무대에서 직접 실연해보는 과정 속에서 한국 사회 내 다양한 문화들이 움직임을 통해 수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은 교육목표와 내용을 토대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창작무용 교육모형의 내용을 종합하면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다문화 학생을 위한 창작무용 교육모형

13) 나경아, 박현정, 오유진(2011), 다문화 아동, 청소년들의 무용교육 요구도 조사연구, 『한국무용기록학회지』 21, pp.17-34
 14) F. A. Meyer(2010), *Implementing the National Dance Education Standards*(Champaign, IL: Human Kinetics), pp.130-150.

춤은 인간의 다양한 움직임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움직임에는 각 나라의 역사 사회 예술 문화 등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으므로 춤을 통해 다른 나라와 자신의 모국, 타인에 대한 이해, 최종적으로는 자신에 대한 이해의 단계까지 이를 수 있다. 현대의 무용교육은 창작무용으로 발전되어 통합적 사고력 및 예술성과 창의성 개발 영역에서 교육적으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변화 등 다각적인 방면에서 춤이 지닌 고유한 가치를 바탕으로 신체활동의 증진과 사람들과의 적극적인 협력 및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기에 전인격적 교육, 다문화적 교육의 일환으로 무용교육은 적극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현행 교과서에 민속무용이나 전통놀이 등의 형태로 간간이 이루어지는 등 신체활동을 매개로 한 다문화교육은 그 비중과 중요성은 낮은 편이다. 유럽의 경우 신체활동을 매개로 하는 다문화 움직임 교육이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서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목받는 것에 비하여, 한국에서는 단발적 행사에 그치거나 자율적으로 이루어질 뿐 체계적인 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이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초등학교 현행교과과정에 다문화 무용교육이 체육교과에 포함되어 실시되기 때문에 수업 내용간의 지속성이나 연계성을 파악하기 어렵고, 특정 서구 중심적인 민속무용과 전통놀이의 무용교육이 실시되는 것으로 보아 다문화 이해에 대한 영역이 매우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다문화 무용교육의 수업 요소들이 다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하는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역할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어려워 보인다.

교육은 한 사회를 구성하는 개개인을 통합하여 개인과 사회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학습목표를 기반으로 하는 건설적인 교육과정의 틀을 필요로 하게 된다. 초등학교 공교육은 다문화 교육을 위한 통합적, 상호 보완적, 문화 체험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교과목의 교수-학습 체계가 구성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다문화’에 관한 구체적인 이해관계 없이 피상적인 다문화 교육이 실시되고 있음이 사회과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결과로 밝혀지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한국사회의 다문화를 현실적으로 반영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하는 다문화교육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2. 창작무용 교육모형 검증

개발한 교육모형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에 신체적, 정서적, 사회문화적 영역에 대한 변화를 측정하였다. 신체적 영역은 유연성과 근력을 직접 측정하였고, 정서적 영역은 자기효능감 변화를 검증하였다. 사회문화적 효과를 확인하게 위해서 개방형 질문지와 심층면담을 통해 질적 조사를 하였다. 다음의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모든 변인의 검증에서 통계적으로 뚜렷한 의미성이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시행 횟수와 표본 집단의 사례 수가 증가된다면 보다 명확한 변화 양상을 보일 것으로 여겨진다.

가. 신체적 영역

신체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체전굴을 통해 발끝에서부터 손이 넘어가는 끝까지의 거리를 cm단위로 재어 유연성을 측정하였고, 이와 함께 Inbody측정기계를 통해 순간근력을 측정하였다(<표 7>).

〈표 7〉 순간근력 및 유연성 변화 점수(단위: cm)

영역	측정시기	사례수(명)	평균±표준편차	t	df	p
순간근력	사전	12	121.41±22.94	-.85	22	.089
	사후		134.81±18.32			
유연성	사전	12	4.02±1.59	-4.24	22	.026
	사후		7.31±3.82			

프로그램 실시 전 순간근력과 유연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1차시 시강 전 순간근력은 121.41±22.94, 유연성은 4.02±1.59이며, 프로그램 종료인 12차시 시강 후 순간근력은 134.81±18.32, 유연성은 7.31±3.82로 수치가 높아졌다. 순간근력 수치의 변화양상은 $t=-.849$ 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수치상의 점진적 증가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연성 수치의 변화 양상은 $t=-4.242$ 로 $p=.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순간근력과 유연성이 12차시 프로그램을 통해 증가한 것은 매 차례 실시한 스트레칭 동작과 역동적인 움직임을 통해 근력이 발달되고,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나. 정서적 영역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Hillman(1986)¹⁵⁾의 「아동의 자기효능감 검사도구」와 Perry(1986)등¹⁶⁾의 「자기효능감 척도」를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질문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일부용어의 수정이 이루어졌고, 애매모호한 문장과 중복의미를 갖는 문장 등을 찾아서 제거하였다. 또한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경험하지 못했거나 자신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문항을 찾아 질문을 보완, 수정하여 문항검토를 실시하였다. 이 설문지에는 자기효능감을 지적, 사회 정서적, 신체적 영역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영역 6문항으로 총 1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지적 영역은 아동의 기억력, 이해력 및 학교생활이나 학업수행 능력 등에 대한 내용이며, 사회 정서적 영역은 사회적 상황과 정서적 표현 상황에서의 효능감을 묻는 내용이다. 신체적 영역은 동작상황 능력, 지구력, 체력, 건강, 운동능력 등에 관한 자기효능감을 묻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정말 그렇다’까지 4점 척도에 평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측정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¹⁷⁾

프로그램 실시 전과 실시 후,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자녀들의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12차시 프로그램 후에 자기효능감의 하위 영역이 모두 높게 나타났다. 지적영역의 자기효능감은 사전 2.48±.64에서 사후 3.16±.58로 높아졌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6.16$, $p=.011$). 사회 정서적 자기효능감은 사전 2.06±.49에서 사후 3.40±.55로 증가하였고, 통계적으로도 의미 있는 차이가 발견되었다($t=3.69$, $p=.004$). 신체적 자기

15) S. J. Hillman(1986), Measuring self-efficacy: preliminary steps in the Development of a multi-dimensional instrumen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16) D. G. Perry, L. C. Perry and R. Paul(1986), Cognitive social learning mediators of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57, pp.700-711.

17) 박현정, 김지영(2013), 학교문화예술교육으로서 방과 후 무용교육활동에 따른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변화, 『한국무용학회지』 12(1), p.18.

효능감의 경우 무용 활동에 참여하기 전 3.04±.55에서 참여 후 3.16±.60으로 점수의 증가는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표 8>).

<표 8>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자기효능감의 변화 기술통계 및 t검증

요 인	시기	사례 수	평균±표준편차	t
지적 자기효능감	사전	12	2.48±.64	6.16*
	사후		3.16±.58	
사회 정서적 자기효능감	사전	12	2.06±.49	3.69**
	사후		3.40±.55	
신체적 자기효능감	사전	12	3.04±.55	4.46
	사후		3.16±.60	

*p<.05, **p<.01

다. 사회 문화적 영역

창작무용 교육모형의 사회 문화적 효과는 12명의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자녀들과의 인터뷰 및 반 구조화된 설문지를 토대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반 구조화된 질문은 총 15문항이며, 이 중 사회 문화적 효과를 확인 할 수 있는 6문항을 추출하여 참여자와 진행자의 시각에서 분석하였다.

<표 9> 무용 프로그램을 통한 사회 문화적 변화 양상

질문1	나는 춤을 더 많이 배워보고 싶고, 더 잘해보고 싶은 사람은?
질문1에 대한 결과는 83.3%가 춤을 더 배워보고 싶거나 더 잘해보고 싶다고 하였고, 16.7%는 춤을 더 이상 배우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춤을 더 이상 배우고 싶지 않다는 응답은 춤이 자신과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음악에 맞춰 몸을 움직이며 춤을 추는 것이 부끄럽고 어색하다고 생각하여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질문2	음악에 맞추어 스스로 표현하는 움직임에 대해 어떻게 생각이 드나요?
질문2에 대한 결과는 춤을 배우고 난 후 스스로 표현하는 움직임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75.0%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은 25.0%로 나타났다. 만족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타난 것은 춤을 배우고 신체를 움직이는 과정 속에서 신체적인 변화도 느끼고, 다른 사람과의 친밀감도 형성되어 스스로에게 만족감과 성취감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질문3	후프, 천, 바디삭스 등 도구를 활용한 움직임은 각각 어땠나요?
질문3에 대한 결과는 후프 활용이 좋다는 응답은 25%, 천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3.3%, 바디삭스가 좋다는 응답은 41.7%로 나타났다. 후프 활용이 좋은 이유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① 어렸을 때부터 많이 접해서 친숙한 도구이다 ② 점프 등 다양한 동작을 해 볼 수 있다 ③ TV에서 보던 리듬체조 선수처럼 동작을 해 볼 수 있다 천이 재미있다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생각하는 대로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옆에 있는 파트너와 함께 활용할 수 있다. 다양한 색깔이 있어 마음에 드는 색깔 천을 고를 수 있었다. 가볍고 촉감이 좋으며, 천을 들고 움직일 때 예뻐 보여서 좋았다.’ 바디삭스가 재미있다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천속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재미있다. 특이한 모양을 많이 만들 수 있다. 얼굴이 보이지 않아 창피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춤출 수 있다.’ 대상자들이 도구 사용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가운데, 각 도구별 특징에 따라 활용법에 대한 의견도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질문4	수업 후 집에 가서 가족들과 같이 해보았나요?
<p>질문4에 대한 결과는 50%가 배운 춤을 집에 가서 가족들과 같이 해보았다고 하였고, 50%가 해보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해보겠다는 응답은 스스로 춤을 배우며 느낀 감정을 가족과 공유하고 싶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며, 해보지 않았다는 응답은 가족 앞에서 춤을 추는데 대해서는 어색하고 자신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p>	
질문5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춤을 추니 어떠한가요?
<p>질문5에 대한 결과는 83.3%가 친구들과 어울려서 춤을 추는 것이 좋다고 하였고, 16.7%는 혼자 춤을 추는 것이 좋다고 응답하였다.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서 추는 것이 좋은 이유로는 ① 같이 보내는 시간이 좋다(50.0%), ②친구와 더 친해질 수 있다(33.3%), ③ 덜 어색하다(16.7%)라는 의견으로 춤을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즐거움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혼자 춤을 추는 것이 좋다는 결과는 2명이 응답했으며 독립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고,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이 쑥스럽거나 어색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상호작용보다는 자신에게 더 집중하게 되는 결과로 판단된다.</p>	
질문6	남들 앞에서 춤출 기회가 있다면 이번에 배운 춤을 출 사람은?
<p>질문6에 대한 결과는 남들 앞에서 배운 춤을 춘다는 의견이 66.7%로 나타났고, 춤을 추지 않겠다는 응답이 33.3%로 나타났다. 춤을 춘다는 결과는 춤을 배우면서 느꼈던 감정변화와 타인과의 관계형성에 대한 자신감, 자기만족 등이 남들 앞에서 춤을 추고 싶어 하는 욕구를 형성토록 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남들 앞에서 춤을 추지 않겠다는 의견은 아직은 타인의 앞에서 춤을 추는 것이 어색하고, 자연스럽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거나 음악에 맞춰 움직임을 표현하는데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p>	

다문화 무용교육은 인간의 근본인 몸을 활용하여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넘어 이질감을 극복하고, 소통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교육적 기능의 포괄적인 가능성을 담고 있다. 무용교육을 통하여 자아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시기의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자녀들에게는 몸을 직접 움직이고 상대와 함께 접촉하고 직접 체험함으로써 상대적 이해와 소속감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자녀들을 대상으로 많은 무용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긍정적인 부분들을 더 발전해 나가 더 많은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자녀들이 무용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 자연스럽게 다문화가 아닌 한문화로 인식될 수 있게 도와줘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자녀들이 무용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력, 표현력 등의 발달시킬 수 있는 긍정적 인면뿐만 아니라 무용학 발전에 있어 큰 기여도가 생길 것이다. 결과적으로 다문화 무용교육 모형개발은 타 문화를 답습, 모방에 의한 교육이 아니라 다른 문화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도모하여 우리 사회에서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교육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근본적인 개선 사안이자 필수 요인으로 볼 수 있다. 특정한 국가의 전통 문화, 민속 문화를 체험하는 차원의 파행적인 다문화교육은 다문화 인권 가운데 소수인권의 차별과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으며, 다문화에 대한 편향적인 이해관계를 심어줄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에 의한 거시적인 목표와 방향성에 입각한 교육이 아니라, 순수한 다문화 자체를 위한 보다 구체적인 다문화교육 모형의 개발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교육의 가치와 특성이 반영된 무용교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다문화가정의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창작무용 교육모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존의 무용교과 프로그램 및 국내외의 선진사례를 분석하고 무용을 다문화적 시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론을 구축함으로써 창의성과 개성을 존중한 창작 무용교육 모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과제가 추구하는 다문화 이해를 위한 무용교육 모형은 현대무용이나 유럽 중심의 포크댄스를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각의 개성을 이끌어내는 창작 무용을 기반으로 각 지역과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다양성을 모두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 민속무용 레퍼토리 중심의 다문화 무용교육은 도식화되고 작위적인 전통에 집착하여 한 문화에 내재된 다양성과 이질성을 무시하거나, 각 문화의 특수성만 강조한 나머지 여러 문화를 관통하는 보편성을 간과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무용 활동을 통한 신체적 공통 경험을 강조하더라도 타자의 문화를 수동적으로 배우는 차원에 머무른다면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소통과 교류를 지향하는 다문화교육의 목표에서 멀어질 것이기에 본 연구에서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삶과 환경을 고려한 움직임과 자기표현 유도 방식이 우선시 되어 모형개발이 진행되었다.

창작무용 교육모형을 개발하기 위하여 현재 정부주관으로 운영되는 다문화기관의 담당자와 초등학교 교사, 다문화가정 부모를 대상으로 무용교육 모형개발의 적합요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문헌연구 및 기관 현장조사연구, 비구조화된 설문지를 실시하였으며, 선정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자녀 12명을 대상으로 12회의 창작무용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은 예비검사의 일환으로, 개방형 설문과 문헌조사, 기관조사를 통해 분석한 자료를 통해 개발된 교육모형이 초등학교시기에 적합한지, 실제 현장에서 적용가능한지를 검증하기 위한 절차이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창작무용 교육모형은 교육목표, 내용, 평가방법이 구체화되었으며 자기 인식, 움직임 확장, 감정 표현의 총 3단계로 구성되었다. 둘째, 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신체적, 정서적, 사회문화적 영역에서 프로그램 실시 전과 후의 변화를 검증하였다. 신체적 영역에서는 유연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고, 정서적 영역을 검증한 자기효능감 검사는 지적 영역과 사회 정서적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변화를 발견하였다. 사회 문화적 영역은 대상자와의 인터뷰를 통해 질적 분석하였고, 모든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한계점에 부딪히게 되었다. 서울, 경기 지역의 다문화 전문 교육기관 중 특히 국제결혼가정과 외국인 근로자 가정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에 방문 면담 요청을 하였으나 대부분 수락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 및 경기지역에 있는 다문화 전문 교육기관 및 복지관 등에 전화와 이메일로 연락을 취하였지만, 연결된 곳이 거의 없었다. 통화가 되어 프로그램의 대략적인 취지와 내용을 설명한 후에 담당자가 메일로 답변을 주겠다는 곳도 있었지만, 실제로 답변을 준 기관은 세 군데에 불과한 등 매우 배타적이라는 느낌을 받게 되었다. 그 중 한 곳은 학생들의 안전과 신변에 관한 문제로 인해 외부노출이 힘들고, 연구 및 기관 탐방을 원하는 단체와 학생들이 너무 많아 모든 인원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기관방문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국 사회 내 다문화가정이 급증하고 무용의 요구도 및 장점과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지만, 정착 대상자인 다문화가정 자녀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으며 개인 연구자에 대한 배타적인 성향은 분명 우리 사회가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

완성된 모형을 바탕으로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자녀를 위한 교육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모형에 기반을 둔 프로그램을 통해 보다 지속적으로 정확하게 검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프로그램의 시행 횟수, 표본 집단의 수, 검증도구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확인한 후 각 영역에서의 변화양상을 검증하는 절차가 추후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제시한 창작무용 교육모형이 실제 교육현장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모형 내에 존재하는 변인들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대상자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게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교육대상자가 다문화가정 초등학생 자녀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공감의 필요하며, 일방적인 교육이 아닌 양방향적인 접근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의 결과물은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비교 문화적이고 창의적인 무용 이해와 경험을 제공하는 무용교육을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며, 기존의 다문화 무용교육의 콘텐츠를 확장시키는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추후 본 모형의 마지막 단계인 결과변인에 대하여 수차례의 과학적인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개발된 창작무용 교육모형이 실제 다문화 교육현장에 적용될 시 수정되거나 보완하여야 할 점이 있는지, 모든 연령별로 효과가 있는지 등에 관하여 정확한 검증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완성된 무용교육 모형이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실용화 방안이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박현정, 이영주, 신정원(2013). 『경계를 넘어선 예술: 한국예술연구소 예술교육총서 4권』. 서울: 연극과 인간.
-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2012). 『다문화 사회의 이해: 다문화 교육의 현실과 전망』. 서울: 동녘.
- 한혜리(1996). 『무용교육론』. 서울: 한학문화.
- F. A. Meyer(2010), *Implementing the National Dance Education Standards*. Champaign, IL: Human Kinetics.
- 김갑성(2006). 한국 내 다문화가정의 자녀교육 실태조사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수경(2012). 소고춤 체험을 통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한국문화 적응. 숙명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장현주(2010). 다문화가정 아동을 위한 지역문화시설의 무용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인숙, 이경희(2011). 무용/동작 치료 프로그램이 다문화가정 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7(4): 57-73.
- 나경아, 박현정, 오유진(2011). 다문화 아동, 청소년들의 무용교육 요구도 조사연구. 『한국무용기록학회지』, 21: 17-34.
- 나경아, 박현정, 오유진(2012).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문화정체성 형성을 위한 무용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적용. 『한국무용기록학회지』, 24: 19-35.
- 박현정, 김지영(2013). 학교문화예술교육으로서 방과 후 무용교육활동에 따른 초등학생의 자기효능감 변화. 『한국무용학회지』, 12(1): 63-73.
- 손재현, 김한아, 이성노(2012). 무용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다문화가정 자녀의 사회성 발달. 『우리춤과 과학기술』, 18: 88-106.
- S. J. Hillman(1986). Measuring self-efficacy: preliminary steps in the Development of a multi-dimensional instrumen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 D. G. Perry, L. C. Perry and R. Paul(1986). Cognitive social learning mediators of Aggression. *Child Development*, 57: 700-711.
- 김규철(2013년 7월 29일). 대한민국은 이미 '다문화국가'. 『내일신문』.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503, 2014.5.1>.
- 박찬준(2014년 7월 30일). 신생아 20명 중 1명 다문화가정서 태어나. 『세계일보』.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07/30/20140730004117.html>, 2014.9.5>.
- 교육부 <<http://www.moe.go.kr>>.

통계청 <<http://www.kostat.go.kr>>.

논문투고일 2014. 12. 15

심사일 2014. 12. 20

심사완료일 2014. 12. 28

www.kci.go.kr

Development of Creative Dance Model for Multi-cultural Grade-schooler

Kim, Hyun-Nam

Professor,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develop a creative dance education model for grade-schooler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 creative dance program of twelve classes was conducted for twelve grade-schoolers of multi-cultural families so as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model. As a result of a survey, the creative dance education model materialized educational goals, contents and evaluation methods and organized by total three stages of self-awareness, movement expansion and emotional expression. Also, changes before and after the fulfillment of the program were verified in physical, emotional and sociocultural fields so as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model. In the physical field, flexibility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results and self-efficacy test verifying the emotional field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s in the intelligent field and the socioemotional field. The sociocultural field conducted a qualitative analysis through the interview with objects, and positive changes were shown in all of the fields.

Keywords: Multi-cultural(다문화), Grade-schooler(초등학생), Creative dance(창작무용), Model development(모형개발), Dance education(무용교육)